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석사·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굴 보고 살게요?” 오랜만에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 자연, 바람도 함께 만났다. 들판은 어느덧 보리가 베풀고 모내기가 한창이다. 드넓은 논에 어린 모가 들판을 가득 차 마음이 풍요롭다. 6월은 푸르른 녹음으로 한걸음 건너가는 시기이다. 들판의 풀 향 내음이 좋다.

전주에 있는 수목원을 방문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였다. 눈으로 웃고 마음으로 채워진 자리에 점심 먹을 장소인 정자를 찾았다. 김제 들판이 보이는 곳에서 도시락을 펼쳤다. 시를 사랑하는 P가 보자기를 펼쳤다.

가방 안에서는 끊임없이 음식이 줄을 이어 나왔다. 밥통에 넣어진 굴비, 상추 김치, 무말랭이, 올봄에 담은 머위장아찌, 우리의 음식과 어울리지 않은 치즈까지 한가득 밥상이 차려졌다. 꽃무늬 식탁보까지 펼쳐진 밥상을 보니 입가에 미소가 가득 번졌다.

따사로운 햇살, 들 바람이 부는 정자에 앉아 점심을먹는 시간이 행복하다. 모가 심어진 들판에서 감사의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도시인에게는 흔하지 않은 시간이다.

시골의 인심은 아직도 살아 있어 지나가시는 어르신마다 한마디씩 전하는 인사말이 정겹다.

점심을 먹으며 찬(반찬) 사연을 들었다. 어머니가 키워서 담근 상추 김치, 해남에서 후배가 담았다는 머위장아찌, 화순에서 올라온 정성이 들어간 된장, 그리고 이른 새벽에 정성스럽게 구워진 굴비 한 마리를 들고 반찬의 사연마다 감동하며 먹었던, 정자에서의 점심은 세상살이에 중요한 것은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석사·박사보다 더 훌륭한 것은 ‘봉사’라고 했더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사’라고 하였다.

봉사는 좋지만, 밥을 먹고 얼굴을

보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닌갑? 라는 말에 천만번 공감해 보는 시간이었다.

김제 들판이 바라보이는 정자에 앉아 시를 낭송하였다. ‘무심에 관하여’ 허형만의 시 일부본이다.

‘무심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뜬금없이 사십년간 소식을 몰랐던 대학 동창이/자기도 무심했지만 쫓겨 더 무심하다 했습니다./ 단혀진 인연이 다시 열린다는 건 분명 전을입니다.’ 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가장 좋은 세상살이는 ‘얼굴 보고 밥 먹자’는 지인의 한마디에 더 고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가끔 방문하는 웃가게는 식사할 수 있다. 보리밥, 김치, 된장, 제철나물 등을 먹을 때 ‘밥사’라고 하였다. 가끔 사장님이 한 번씩 무쳐주는 뽕치무침은 감칠맛이다.

오시는 손님 누구나 밥통에서 스스로 밥을 떠서 먹으며 사람들과 소통한다.

오랜만에 들려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이 계시는데 식사하는 동안 너무 외로워서 가족사진을 놓고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식사를 드시라고 밥을 넉넉히 준비한다고 한다. 자식들은 다 성장해 타지에 살고 홀로 남은 어르신은 식사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마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2018년 성균관대 의대 가정 의학 교실 논문에 따르면, 혼밥을 하는 노인 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노화 속도가 빨라질 위험도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외롭게 밥을 먹으며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주어 반가운 소식이다.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학생은 식사를 거르기가 쉽다. 대학에서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주니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하면 밥맛이 더 좋을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홀로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함께 산다는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뭣이 중한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싶다.

석사·박사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사람을 돌보고 챙기는 일이다. 우리 이웃에 외로운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를 기웃거리 보는 것도 서로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나 묵고 살기에 바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나를 반성해보는 하루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자



이재형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장

대낮엔 뜨거운 햇살로 인해 벌써부터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폭염이 심할수록 가정이나 직장에서 에어컨등 냉방기기의 화재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에어컨 화재는 총

692건으로 과열, 과부하에 따른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선풍기와 에어컨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먼지만 잘 제거해도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일단 \*통풍이 잘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안전한 실내로 이동하고 \*수시로 물과 이온음료를 음용 \*탈의 \*피부에는 물을 뿌리면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는 게 중요하다.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신체 활동량 강도가 높은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그늘이 있는 곳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요즘같은 무더운 날씨엔 노약자와 어린이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몸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땀샘이 감소해 땀 배출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염특보가 발효된 무더운 날에는 지나친 신체활동이나 야외활동을 피하고, 어린이의 경우 아주 잠시라도 차에 혼자 있거나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모두 폭염을 잘 대비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내도록 하자.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자



한선근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에 사망자의 33%로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였다.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감지하여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있다.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연평균) 전체 화재 건수에서 주택화재가 발생률은 20%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60%가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인 0~6시

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처럼 안전에 중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0만 원 정도를 기부하면 소화기, 단

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꾸러미(3만 원 상당)를 선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주택화재 발생 시 안전을 책임지는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Advertisement for 'Gyeongnam Daily' (호남매일)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website, and subscription details.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지국안내, 상무, 오치, 지사안내,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영광, 완도, 장흥, 신안, 강진, 장성, 무안, 여수, 함평, 영암, 진도, 해남, 광산.